**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2018년 1월 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은총의 표시로 하느님께서 새로운 한해를 선물로 열어주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올 한 해도, 하느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총과 자비에 크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이 한해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올 한해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안에서 낡은 것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 날입니다. 지난 날의 상처와 후회를 다 씻고,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되는 날입니다. 분노와 질투의 화신이었던 내가 사랑과 자비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 한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살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 수록 내 마음 안의 행복도 커집니다.

일반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을 구별하는 첫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꼭 감사할일이 생겨야만 감사를 하는데, 참된 신앙인들은 감사할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하고 삽니다. 미리 당겨서 감사를 하는 거죠. 절대로 당겨쓰면 안 되는 것이 돈이지만, 감사는 꼭 당겨서 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한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공소가 하나 있는데, 그 공소 이름이 ‘감사 공소’입니다. 보통 공소는 그 동네이름을 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는 동네 이름을 따지 않고 그냥 ‘감사 공소’라고 불립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 군종 신부님이 같이 가던 부대랑 떨어져서 혼자 산 속을 헤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산 속을 한참 헤매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랍니다. 그 조그마한 움막 앞에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문을 열려다가, 또 모르잖아요, 그 안에 북한군이 있을지. 전쟁 중인데.

그래서 가만히 몰래 그 집 안을 들여다 보니까 십자가 고상이 보이더랍니다. ‘어휴, 이제 진짜 살았다! 교우집 인가보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뭔가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구구절절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하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반찬을 먹기에 감사한가?’ 하며 구멍으로 봤더니, 밥상에는 커다란 누런 바가지에다가 물만 잔뜩 떠놓고,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국도 없고. 그냥 맑은 물 한 바가지가 다였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시원한 물도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시원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식으로 하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그냥 하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더래요. 이 미국 군종 신부님이 그걸 밖에서 들여다보고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맞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저런 감사구나!’

거기서 며칠 머무르다가 부대로 합류한 신부님은 미국에 돌아가서 이 일을 가는 성당마다 강론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 작은 성당을 세우고 싶다고 후원을 부탁하니까 순식간에 수만 달러가 모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집터에다가 공소를 세우고, 그 공소 이름을 ‘감사 공소’라고 지었대요. 이 지금까지도 ‘감사 공소’라고 불립니다.

어느 성당이든지 그 성당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되면 ‘감사 성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가족들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오면, 그 가정도 ‘감사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늘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면, 그 삶은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당 ‘감사 성당’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감사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불평 불만이 많은 곳에는 온갖 불신과 분열이 들끓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집안에 여러가지 우환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두 다리로 이렇게 성당 찾아와서 미사드리면서, 한해를 희망차게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 많은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주님이 얼마나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습니까! 그 순간 순간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이,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과,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축복 받은 것이며 은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더 많은 눈부신 축복과 은총들이 여러분들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갑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은 더 커집니다.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는데, 첫째, 욕심이 앞을 가릴 때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감사는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걸로 착각할 때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와있습니다. 감사는 찾아 헤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느님을 바라보면,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다 감사할 것 뿐 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해를 시작하는 이 날,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모델 한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명하는 신앙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겸손’과 ‘순명’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순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겸손’과 ‘순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느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느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질 나면, 하느님도 팽개쳐버립니다. ‘자기가 하느님이면 다야? 예수면 다야?’ 성당도 안나오면 끝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가톨릭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순명’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과 ‘순명.’

참된 겸손은 하느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나는 매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고, 화나고 성질 나는 그 순간 순간에도,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이 성모 마리아였죠. 신앙의 모범이고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할 길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마리아께서 사셨던 그런 ‘겸손’과 ‘순명’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도록 교회는 권고합니다. 이것이 참 행복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